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0-23 (금요일)

이 기록은 한국과 미국 시장의 주요 지표를 매일 모아, 그 '변화'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읽으려는 시도입니다. 경제 기사를 자주 보지 않는 분도 따라오실 수 있게, 용어는 처음 나올 때 풀어 쓰고 숫자에는 맥락을 붙였습니다. 수집 시각은 10월 23일 밤 9시 8분(한국 시간)입니다.

[오늘의 한 줄]

어젯밤 미국에서 반도체 주식이 6.7% 급락했고, 그 충격으로 코스피는 장중 한때 4.1%까지 밀렸다가, 폐장 20분을 남기고 기관 매수에 힘입어 플러스(+0.30%)로 뒤집어 마감했습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

■ 한국 시장 (10/23 정규장 마감, 오후 3시 30분)

왜 보는가: 하루 시장의 결론이자, 아래 모든 해석의 출발점입니다.
- 코스피 5,550.30 (+16.53, +0.30%). 장 시작은 -2.36%(5,403.17), 장중 최저 5,305.98(-4.12%)까지 밀렸다가 막판 상승 전환했습니다.
- 코스닥 751.69 (-12.41, -1.62%). 이틀째 하락으로, 대형주(코스피)와 중소형주(코스닥)의 흐름이 엇갈렸습니다.
- 삼성전자 215,500원 (+0.47%), SK하이닉스 1,277,000원 (+4.42%). 하이닉스는 자회사 솔리다임의 기업공개(IPO, 새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절차) 중단 소식에 반등했습니다.
- 삼성전기 1,122,000원 (-2.01%).
- 전력기기 3종(전력 설비 수출주): HD현대일렉트릭 470,000원 (-4.08%), 효성중공업 1,877,000원 (-2.44%), LS일렉트릭 156,900원 (-2.79%).
출처: 네이버증권(m.stock.naver.com), 연합뉴스 마감 종합(16:29)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3137600008

■ 오늘 누가 사고팔았나 (한국거래소 오후 3시 35분 집계)

왜 보는가: 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도 '누가' 움직였는지에 따라 다음 날 흐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외국인 매도는 지속성이, 기관(연기금 포함) 매수는 방어 성격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- 코스피: 외국인 -9,928억원 순매도(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), 기관 +8,723억원 순매수(이 중 연기금 등 +529억원), 개인 +527억원, 기타법인 +691억원.
- 코스닥: 외국인 -441억원, 기관 -248억원, 개인 +631억원, 기타법인 +33억원, 연기금 등 -255억원.

- 누적(9/23부터 19거래일, 네이버 종가 기준 자체 집계, 근사치):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약 27.8조원, 코스닥에서 약 8,50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. 한 달 새 외국인이 27조원 넘게 팔아치운 셈으로, 오늘의 기관 방어가 없었다면 지수 방향이 달랐을 가능성이 큽니다.
출처: 연합뉴스 투자자별 매매동향 표(15:37 송고)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3130300008
※ 연합 기사(16:29)의 수급 수치(외국인 -9,810억원 등)는 마감 시각 집계라 3시 35분 표와 약간 다릅니다. 집계 시각 차이이니 참고로 봐 주세요.

■ 미국 시장 (10/22 마감 - 한국보다 반나절 늦게 끝나는 시장이라 항상 전날 밤 값입니다)

왜 보는가: 최근 한국 시장은 미국 기술주, 특히 반도체의 밤사이 움직임을 다음 날 아침에 그대로 물려받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
- 나스닥 종합 26,008.86 (-2.60%), S&P500 7,663.43 (-1.21%), 다우 52,867.98 (+0.02%).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(SOX, 미국 반도체 대표 30개사를 묶은 지수) 10,731.98 (-6.72%). 하루 -6.7%는 이 지수에서도 손에 꼽히는 큰 낙폭입니다.
- 개별 종목: 엔비디아 212.21달러 (-4.40%), 마이크론 856.49달러 (-6.26%), 샌디스크 1,260.93달러 (-8.51%), 팔란티어 196.19달러 (-2.74%), 아이온큐 31.16달러 (-3.47%), 아마존 250.38달러 (-4.57%), 마이크로소프트 521.08달러 (-2.23%), 구글(알파벳) 324.22달러 (-3.15%), 메타 648.85달러 (-6.98%), 오라클 125.54달러 (-2.78%), 코어위브 55.60달러 (-10.06%), 블루아울 9.71달러 (+5.89%).
- 기사로 확인된 배경: 메타의 잉여현금흐름(FCF,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에서 설비투자 등을 뺀 뒤 실제로 남는 돈) 적자 전환 보도와 테슬라의 설비투자 전망 하향이 AI·반도체 주 전반의 조정을 이끌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. (※ 기사 인용 수치이며, 회사 공시 원문으로 직접 확인한 값은 아닙니다.)
출처: Yahoo Finance(finance.yahoo.com/quote/각 심볼), 위 연합 마감 기사

■ 채권·환율·원자재

왜 보는가: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교차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
-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.96% (10/22). 전날 5.13%에서 0.17%p 하락
- 주식 급락일에 안전자산인 국채로 돈이 몰리며 금리가 내려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(20년물 5.32%, 30년물 5.29%)
- 최근 7일 새 장기 국채 입찰 결과는 없었습니다(19년 10개월물 재발행 5.469%/응찰률 2.73은 지난번과 동일).

- 한국 국고채 3년 3.816% (16:17), 일본 국채 30년 3.843% (19:00).
- 원/달러 환율: 마감 기준가 1,324.6원 (+0.4원, 15:30). 밤 9시 현재 약 1,324.1원 (Yahoo).
- 원자재·선물(밤 9시 수집, 진행 중 세션의 값이라 다음 날 아침엔 달라질 수 있습니다): 나스닥100 선물 29,137.75 (-0.01%), 닛케이 선물 62,425 (-0.46%), WTI 원유 100.81달러 (+1.35%), 브렌트유 109.94달러 (-2.85%), 금 4,038.80달러 (-0.53%).
- 미국 항공유 4.632달러/갤런, 경유 5.265달러/갤런 (EIA 10/21 발표분, 에너지정보청은 미 정부 통계 기관이며 약 이틀의 시차가 있습니다).
출처: 미 재무부 일일 금리(home.treasury.gov), TreasuryDirect 입찰 공고, 네이버증권, Yahoo Finance, EIA(eia.gov)

■ AI 가격 신호 3종 (이 기록이 새로 추적하기 시작한 지표들, 10/22 미국 마감 기준)

왜 보는가: 'AI 투자 열기가 식고 있는가'를 뉴스가 아니라 가격으로 확인하기 위해,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.
1. 반도체 대 시장 전체의 괴리: 최근 20거래일 동안 반도체지수(SOX)는 -14.09%, 나스닥은 -3.45%. 반도체가 시장보다 10.6%p 더 빠졌습니다. 반도체는 이 상승장의 선두였는데, 선두가 전체보다 빠르게 약해지는 것은 상승의 동력이 줄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. [계산: Yahoo 일별 종가 기준]
2. 빅4 대 취약 사업자: AI에 큰돈을 쓰는 초대형 4사(마이크로소프트·구글·아마존·메타)의 6개월 최고가 대비 평균 낙폭은 -13.0%(개별: MS -4.1%, 구글 -19.5%, 아마존 -11.8%, 메타 -16.6%). 반면 AI 인프라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쪽 3사(오라클 -49.4%, 코어위브 -59.7%, 블루아울 -23.3%)는 평균 -44.1%입니다. 아직은 '모두가 함께 무너지는' 그림이 아니라, 빚으로 움직이는 사슬에 압력이 집중된 그림입니다. 다만 메타는 어제 FCF 적자 보도로 -7% 급락하며 4사 중 가장 약해진 상태라 따로 주시합니다. [계산]
3. 나스닥 고점 대비 낙폭: 현재 26,008.86으로, 52주 최고 종가(10/6, 27,599.79)보다 -5.76% 내려온 상태입니다. 시장에서 관례적으로 '조정'이라 부르는 -10%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. [계산]
※ 참고: 블루아울 같은 회사의 주가 하락만으로 'AI 신용 경색'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. 실제 프로젝트 계약이 흔들리는지(아래 [AI 위험]의 B항) 같은 원자료와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.

[판단]

- 어제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조정은 'AI에 돈을 대는 사슬'에서 시작해 'AI에 돈을 쓰는 대형주'로 번지는 중간 단계로 읽힙니다. 반도체-나스닥 괴리(-10.6%p)와 취약 사슬의 낙폭(-44%)은 그 방향을 가리킵니다.
- 그런데 오늘 코스피는 장중 -4.1%를 플러스로 뒤집었습니다. 외국인은 계속 팔았지만(누적 약 -27.8조원) 기관, 특히 연기금이 받아냈고, 솔리다임

IPO 중단처럼 개별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. '외국인 매도 대 기관 방어'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
- 현재 위치는 매수 적기보다는 '위험 회피'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. 근거는 (1) 반도체 리더십의 빠른 약화, (2) AI 금융 사슬의 낙폭 심화, (3) 외국인 매도의 지속입니다.
- 이 판단이 바뀌는 조건: 반도체-나스닥 20일 괴리가 -5%p 안으로 좁혀지고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돌아서면 '중립'으로 완화하겠습니다. 반대로 나스닥이 52주 고점 대비 -10%(관례적 조정선)에 진입하거나, 빅4 평균 낙폭이 -20%를 넘으면 위험 회피를 강화하겠습니다.
- 이 내용은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 개별 종목의 매매 지시도 아닙니다.

[복기]

만기가 온 지난 판단을 실제 값과 대조합니다.
- 10/16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668.05 아래일 것" (T+5, 10/23 검증) → 실제 종가 5,550.30. 적중.
- 10/22 판단: "코스피 종가가 5,533.77 아래일 것" (T+1, 10/23 검증) → 실제 종가 5,550.30으로 16.53포인트 위. 빗나감.
- 해석: 방향(하방 압력)은 맞았지만, 오늘처럼 장중 -4%에서 막판 플러스 반전한 날은 '종가 한 점'이 하루의 힘을 모두 말해주지 않습니다.
적중·빗나감 기록이 판단의 질 전체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며, 특히 T+1처럼 짧은 창은 장중 수급 이벤트 하나에 뒤집힐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기록합니다.
- 오늘의 새 판단 기록: "코스피 종가가 5,550.30 아래일 것" - T+1(10/26, 월)과 T+5(10/30, 금)에 각각 검증합니다.

[AI 위험 v1]

AI 투자 열기의 균열을 미리 잡기 위해 정해 둔 다섯 가지 조건입니다. 각 조건의 충족 여부를 매일 대조합니다.
- A. AI 기업의 자금조달 실패·철회 (최근 30일 2건 이상): 미확인 - 검증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.
- B. AI 인프라 금융 프로젝트의 불가항력(force majeure,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을 미루는 조항) 통보 또는 지급 유예: 충족 - 오라클이 블루아울의 뉴멕시코 데이터센터 사업(Project Jupiter, 2.45GW 규모)에 보낸 불가항력 통보(9/24 로이터 보도)가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. 후속으로 오라클이 파이프라인 지연을 트럭 운송 천연가스로 우회 중이라는 보도(10/8 블룸버그)가 있었고, 통보가 철회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. 다만 이 조건은 최초 사건 후 30일까지만 유효하므로, 내일(10/24)이 마지막 유효일입니다. 새로운 확인 사건이 없으면 다음 기록부터 B는 '미충족(기간 만료)'으로 바뀝니다.

- C. 사모대출 운용 3사(APO·KKR·BX) 중 2사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20% 이하: 충족 - APO -20.0%, BX -20.5% (KKR은 -19.3%로 아슬하게 미달). (10/22 종가 기준) [계산]
- D. 엔비디아 또는 삼성·SK의 HBM(고대역폭 메모리, AI 칩에 붙는 고성능 메모리) 실적 전망 하향: 미확인 - 확인된 하향 공시가 없습니다.
- E. 전력 인프라 4종(GEV·HD현대일렉트릭·효성중공업·LS일렉트릭) 중 2종 이상이 6개월 최고가 대비 -30% 이하: 충족 - HD현대일렉트릭 -66.9%, 효성중공업 -59.2%, LS일렉트릭 -50.7% (GEV는 -29.6%로 미달). [계산]
- 종합: B·C·E 3개 조건이 충족되어 '4단계(충족 3개)'에 해당하지만, A·D가 미확인이라 확정 단계는 유보합니다(가능 범위 4~5단계). B가 내일 기간 만료되므로 다음 기록에서는 충족 조건이 2개(C·E)로 줄어 3단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.
- 이 표의 임계값은 미리 정해 둔 편집 기준이며, 통계적으로 검증된 예측치가 아닙니다. 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

(끝)